

# 고교 축구 '금호고 천하'... 4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

K리그 U-18 챔피언십...수원 매탄고와 결승전 승부차기 5-3 승  
22개 고등부팀 참가... 감독상·최우수 선수상 등 8개 부문 싹쓸이

프로축구 광주FC U-18 금호고가 K리그 U-18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승부차기 접전 끝에 기록한 대회 첫 우승이다.

금호고는 지난 2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 U-18 챔피언십 매탄고(수원삼성 U-18)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이겼다.

이와 함께 금호고는 20015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K리그 유소년팀 중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8일 시작된 이번 대회에는 K리그 산하 22개 고등부팀이 모두 참가해 우승을 다했다.

금호고는 지난해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 대회 우승에 이어 4년 연속 전국대회 제패 위업도 달성했다.

조 1위(2승 1무)로 16강에 진출한 금호고는 엄지훈과 허윤의 득점포로 진주고(경남FC U-18)를 2-1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디펜딩 챔피언' 현대고(울산현대 U-18)와의 8강전에서는 2-2로 맞선 후반 27분 송주민이 결승골 주인공이 됐다.

준결승 상대는 '안방'에서 경기를 펼친 포항제철고(포항스틸러스 U-18)였다. 그리고 이번 대회 득

점상에 빛나는 허윤이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2-1로 결승행을 확정했다.

매탄고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끝까지 가는 승부가 펼쳐졌다.

전후반은 물론 연장전까지 두 팀은 0-0의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그리고 100분이 넘는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패가 갈렸다.

골키퍼 신승훈이 매탄고의 첫 번째 키커 조윤준의 슈트를 막아내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금호고가 5-3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대회 최우수선수의 영예는 조성권에게 돌아갔다. 7골을 몰아넣은 허윤은 득점상을 차지했다. 송주민(공격상), 김홍은(수비상), 신승훈(골키퍼상), 엄지성(베스트플레이어상)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수용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받았고, 신상훈 코치가 최우수코치로 선정됐다.

챔피언십 첫 우승과 금호고의 4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을 이끈 최수용 감독은 "프로산하의 기량 있는 선수들의 출전하는 대회로 권위가 있어서 욕심을 냈던 트로피다"며 "지난해에는 준결승에서 우승 후



광주FC U-18 금호고가 지난 2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수원삼성 U-18 매탄고와의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시상식장에서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보끼리 만나서 현대고에 승부차기로 졌다. 미련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 같다. 선수들이 좋은 기억을 남기고 축구선수로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승부차기 징크스'를 깨고 이룬 우승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 금호고는 올 시즌 백운기 4강에서 안양공고에 승부차기 접전 끝에 졌고, 협회장기 4강도

영생고와의 승부차기에서 무산됐다.

"처음 저학년부까지 참가하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결승전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됐다"고 밝힌 최 감독은 "최근 전국대회 고비마다 6번의 승부차기를 했는데 모두 졌다. 이번에 그걸 이겨냈다. 올 시즌 목표가 챔피언십과 전국체전이었다. 전국체전에서 아직 우승을 이루지 못하고 준우승만 4년 됐다. 전국체전에 맞춰

준비했는데 먼저 좋은 성과가 나왔다. 분위기를 이어 전국체전에서도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저학년 대회인 U-17 챔피언십 우승 도전에 나선 전남드래곤즈 U-17 광양체절고는 부산아이파크 U-17 개성고에 1-2로 지면서 준우승에 만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EPL 태극전사 전·현직 캡틴 맞대결

손흥민 '토틀넘' vs 기성용 '뉴캐슬' 26일 격돌

'손세이셔널' 손흥민(27·토틀넘)이 지난 시즌 막판 받았던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끝내고 마침내 그라운드에 돌아온다. 복귀전부터 손흥민·기성용 태극전사 전·현직 캡틴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새벽 0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틀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뉴캐슬과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37라운드 본머스전에서 전반 43분 상대 수비수와 감정싸움 과정에서 밀쳐 넘어뜨려 레드카드를 받았다. 결국 3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아 지난 시즌 최종전을 비롯해 이번 시즌 1-2라운드까지 벤치에 앉지 못했다.

손흥민(유럽 통산 116골)은 이번 시즌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21골)과 차범근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 최다골(121골) 기록 경신에 나선다.

손흥민의 복귀전 상대는 '태극전사 선배' 기성용이 뛰는 뉴캐슬이다. 손흥민에게 뉴캐슬은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팀이다.

손흥민은 올해 2월 아시아컵을 끝마치고 토틀넘 복귀전에 나섰다 2월 2일 뉴캐슬과 25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38분 결승골을 뽑아내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뉴캐슬전 득점으로 손흥민은 3시즌 연속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더불어 기성용과 맞대결도 기대된다.

뉴캐슬의 기성용은 2라운드 선발로 출전한 만큼 토틀넘전에도 출전 가능성이 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코리언 터너'가 펼쳐질 전망이다.

기성용과 손흥민은 태극전사 전·현직 캡틴이어서 국내 팬들의 관심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연합뉴스

## 광주일고 9회말 대역전 드라마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에 5-4 승리 8강 진출

광주일고가 9회 역전극으로 봉황대기 8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지난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47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와의 16강전에서 5-4로 승리했다. 8회 동점 뒤, 9회 나온 한지운의 끝내기 안타로 만든 극적인 승리였다.

선취점은 광주일고의 차지였다.

선두타자 진다운이 우측 안타로 출루한 뒤 희생번트와 땅볼로 3루까지 향했고, 4번 타자 한지운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하지만 3회초 연속 볼넷 등 사사구 3개로 1사 만루에 몰린 광주일고가 인천고 윤진에게 2타점 2루타를 내주는 등 4실점을 했다.

광주일고는 선두타자 조형우가 살아나간 4회 1점을 보냈지만 이후 추가 득점 없이 8회를 맞았다.

이번에도 조형우가 선두타자 안타로 분위기를 살렸다. 폭투에 이어 윤도현과 정성모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광주일고가 4-4 동점에 성공했다.

광주일고는 9회초 2사에서 포수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막았다. 9회말 광주일고도 2사에서 상대 유격수의 실책으로 기회를 잡았다. 이어 한지운의 타구가 유격수 글러브를 맞고 중견수 방향으로 향했고 그사이 주자 정도웅이 홈에 들어오면서 광주일고의 끝내기 승이 기록됐다.

광주일고는 22일 오전 9시30분 강릉고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한편 순천 효천고는 21일 열린 성남고와의 경기에서 3-5로 져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성남 톱타자 박태홍에게 우월 솔로포를 맞는 등 0-5으로 끌려가던 효천고가 6회말 장대현의 3루타를 발판 삼아 2점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2사에서 박경식과 김규민의 연속 2루타가 나오면서 3-5가 됐다. 9회말 선두타자 허인서의 2루타가 기록됐지만 이후 세 타자가 범타로 물러나면서 경기는 3-5, 효천고의 패배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졌지만 빛났다 한국 이덕희(212위·서울시청)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윈스턴세일럼오픈 단식 본선 2회전에서 후베르트 후르카치(41위·폴란드)에게 포핸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ATP 투어 사상 최초로 청각 장애 선수의 단식 본선 승리의 주인공이 된 이덕희는 이날 강호 후르카치를 상대로 잘 싸웠으나 1-2(6-4 0-6 3-6)로 아쉽게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 '야구의 날' 전국 야구장 팬 사인회

베이징 올림픽 전승 금 기념 매년 8월 23일...KIA 안치홍·양현종 참가

KBO와 10개 구단은 '야구의 날'을 기념해 23일 고척, 잠실, 문학, 수원, 대구 5개 구장에서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

야구의 날은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8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09년 이후 올해로 11주년을 맞는다.

올해 야구의 날에는 고척(KIA-키움), 문학(한화-SK), 수원(롯데-KT), 대구(두산-삼성), 잠실(NC-LG)에서 경기가 열린다.

각 구장에서는 팬 사인회가 열리며 홈팀과 원정

팀 선수 2명씩 모두 4명이 각 구단을 대표해 팬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KIA에서는 양현종과 안치홍이 사인회에 참가한다. 키움 대표로는 박병호와 김하성이 나선다.

이날 고척 행사에는 국가대표팀 김경문 감독도 참석한다. 오는 11월 고척 구장에서는 '2019 WBSF 프리미어 12' 서울 예선 라운드도 열린다. 또 KBO는 전 구장에서 당일 입장한 관중에게 국가대표 로고 배지 1만5000개(구단 별 1500개)를 선착순 무료 증정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